

'문명충돌' '종교화합' 주제 강연-학술회의 잇달아

불교아카데미·구룡사 등 이웃종교 이해 노력

'이슬람은 과연 호전적인 종교인가. 무슬림들은 테러와 전쟁을 좋아하는가.'

미국의 아프간에 대한 반테러 전쟁 이후 문명간의 충돌과 종교화합을 주제로 한 강연과 학술회의가 잇달아 열리고 있다. 특히 이슬람 이해를 위한 강연 및 토론회가 잇달아 마련되고 있어 종교간 이해와 비교종교학 연구 활성화에 좋은 계기가 될 전망이다.

불교아카데미와 불교포럼, 광주불교사암원, 원주 구룡사 등 불교계를 비롯 한국종교연합선도기구(UR), 한국종교인명화회의(KCRP) 등 종교간 연대기구들이 연이어 이슬람 등 이웃

종교 이해하기 나선 것은 '기독교-이슬람 문명간의 충돌'이 회자되고 있는 요즘 종교화합 분위기 조성에 한 몫을 하고 있다.

불교아카데미(이사장 윤천수)가 5일부터 4일동안 법륜사 '이슬람과의 대화'를 주제로 여는 강좌는 최근 벌어진 미국과 아프간의 대결을 비롯한 서방과 이슬람 간의 충돌에 대한 이해와 진실을 규명하고 종교인과 일반인들의 상호이해를 증진시키자는 의도 아래 준비했다. 마지막 날인 8일에는 불교와 이슬람, 기독교의 성직자와 신도들이 참석하는 '이슬람과 한국종교와의 대화'라는 좌담회가 열릴 예정이다. 관심을 모은

다.02745-7799

한국종교인명화회의가 4일 천주교 종로성당 3층 강당에서 마련한 '문명충돌 위기와 종교' 주제의 강좌는 각 종교별로 8명의 발제자들이 열띤 발표와 토론을 벌인다.02736-2250

원주 구룡사(주지 원행)도 1일부터 한달간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구룡사 대웅전에서 '21세기 현대인의 종교관과 종교화합'을 주제로 특별강연인들의 상호이해를 증진시키자는 의도

아래 준비했다. 마지막 날인 8일에는 불교와 이슬람, 기독교의 성직자와 신도들이 참석하는 '이슬람과 한국종교와의 대화'라는 좌담회가 열릴 예정이다. 관심을 모은

이에 앞서 불교포럼(공동대표 박승원 김연규)은 11월 28일 동산불교회관에서 '다종교 사회, 문명충돌인가 새희망인가' 주제의 토론회를, 광주 불교사암연합회(회장 박상선)와 광주전남불교사찰연합회(회장 김기환)는 11월 30일 광주 관음사에서 '아프간사태, 과연 문명 충돌인가' 주제의 포럼을 개최했다. 한국종교연합선도기구(UR)도 11월 12일 지난 2일부터 진행해 온 '종교간 대화의 문명사적 조망'이란 주제로 다섯 번에 걸친 기획포럼을 회향하는 한편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서울 법안정사에서 종교간의 대화, 명상(참선), 기도를 주제로 워크숍을 갖는다.022264-8260

불교아카데미 정웅기 시민사회국장은 "서구의 영향으로 우리는 이슬람 문화에 대해 왜곡된 시각을 갖고 있었다"면서 "이슬람과의 대화"를 주제로 한 다양한 세미나가 이슬람 문화에 대한 이해는 물론 이웃종교간의 화해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igkim@buddhapa.com

"월드컵기간 템플스테이 禪과 茶 알리는 기회"

전통문화포럼 세미나

2002년 월드컵을 맞아 추진 중인 템플스테이사업의 주 내용을 선(禪)과 차(茶)로 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통문화포럼집행위원장 성광과 명원문화재단(이사장 김의정)은 3일 세종문화회관에서 '템플스테이 추진 방향과 전략'을 주제로 창립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기조 발제한 성광스님(화계사 주지)은 "월드컵 기간중 우리가 가장 자랑스럽게 인류에게 내놓을 수 있는 문화는 입제선의 전통 맥을 이어오고 있는 한국선이다"며 "이번 월드컵을 계기로 사찰을 활용한 한국불교 선문화 세계에 알리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의정(명원문화재단)이사장은 "한국불교의 차문화야말로 우리 민족의 얼과 뜻을 보여주는 드넓은 정신세계를 보여주는 최고의 정수인 만큼 수습역 세계인구에게 한국 차를 알리는 계기가 되어야 한

다"고 밝혔다.

이동호소장(발림연구소)과 정무형(한림대학교수도 스페인 프랑스 등에서 수도원 개방과 탁남한 스님의 빌리지 운영을 통한 베트남 불교 전파, 템플스테이제도가 정착된 일본의 차와 선프로그램 운영 등을 설명하며, 각국의 프로그램 운영 등을 설명하고, 한국의 프로그램 운영을 응용해 고안한 한국적 템플스테이 전략도 제시했다.

방인철 전통문화포럼 집행위원장 대행은 "템플스테이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민간차원의 자본과 기획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민간컨소시엄을 구성해 다도권 설치 등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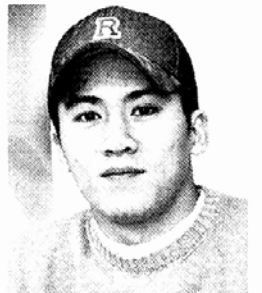
한편 교계가 추진 중인 템플스테이 월드컵 기간중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사찰을 속소로 제공하고, 불교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준비되고 있다.

김원우 기자

인기가수 홍경민 사이버포교사 됐다

본사 붓다뉴스·핸드폰

'지혜의 말씀' 띄워



불자 인기가수 홍경민(사진)이 사이버 공간에서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전방사가 됐다.

홍씨는 현대불교신문사가 무선 인터넷 불교정보서비스 개통 1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홍경민이 띄우는 지혜의 말씀'에 동참했다. 12월 3일부터 모든 핸드폰과 일간 불교뉴스 사이트 붓다뉴스(buddha.news.com)를 통해 홍경민이 가져서 전하는 경전 말씀을 만날 수 있다.

■ 지혜의 말씀' 접속방법

011.017

n.TOP 접속 >>7.뉴스 스포츠

생활 >>9.종교 >>1.불교정보 >>3.

여시아문 >>3.홍경민이 띄우는 지

혜의 말씀

016.018

016은 퍼스넷, 018은 인터넷 접속 >>검색선택 >>3.정보 >>3.법

률/정보 >>3.불교세상 >>3.여시아

문 >>3.홍경민이 띄우는 지혜의

말씀

019

ez-1 접속 >>6.위치/교통/생활

>>4.유익한 생활 >>5.인물/역사/

종교 >>4.불교정보 >>3.여시아문

>>3.홍경민이 띄우는 지혜의

말씀



불교인권위 통일자전거 100대 기증

불교인권위(공동대표 진관)가 11월 28일 길상사에서 조선불교도연맹을 대신해 비전향장기수 안학삼씨에게 통일자전거 100대를 기증했다. 이번엔 전달된 자전거는 부산 문수사, 대광명사, 삼광사, 감로사, 영구암, 비룡사 등에서 모금된 것. 통일자전거 100대는 통일원의 최종인가를 기다리며 현재 인천항에서 선적대기 상태이다. 강유신 기자

한국불자들이 티베트·인도 '지원'

달라이 방준위·우리는 선우 세부계획 마련

종교지도자들 내년 초파일 다람살라 방문

티베트 난민과 인도 불자를 돕기 위한 한국 불자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달라이 라마 방한준비위원회(집행위원장 박광세)는 11월 28일 오후 사무실에서 방한한 달라이 라마 동북아 대표부 자문관 림포체 대사(인터뷰 4번)와 면담을 갖고 지원계획을 밝혔다.

또한 준비되는 우리 정부의 반대로 달라이 라마의 율해 방한이 무산된 것에 대신해 내년 초파일 이전, 종교지도자들이 한국종교인명화회의(KCRP) 주도로 티베트 망명정부에 있는 인도 다람살라로 가서 달라이 라마를 만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면담에서 준비의 속은 자물린

포체가 식수 및 제분기구 지원과 문맹 퇴치 교육, 야생동물 퇴치를 위한 울타리 철조망 지원 등 시급한 지원 내역을 밝혀줌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미화 1만 달러의 지원금을 전달하는 등 본격적인 지원에 나설 방침을 밝혔다. 지원은 우리는선우와 참여불교제가 연대 등이 중심이 될 예정이다.

한편 우리는선우(공동대표 남지심 박광세)는 11월 29일 내년 1월부터 인도의 '로드 붓다 클럽' 대표 아지프 라쉬 등 인도 불교단체에 불서, 염주, 불구를 비롯해 연간 2만 달러 이상의 지원금을 후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재경 기자

"몸과 마음 아픔 치유"

위안부 할머니 무료진료 배오성 한의사

나눔의 집 할머니들을 친아들과 같은 마음으로 10년간 보살핀 한의사가 있다. 92년 나눔의 집 건립추진위원으로 활동했던 인연의 고리를 놓지 않고, 지금까지도 할머니들의 아픈 몸을 돌본 사람은 바로 배오성박사(47·백상한방병원 국제병원장).

"나눔의 집 할머니들은 우리의 근대사에 맺혀 있는 한(恨) 그 자체입니다. 할머니들을 치료하는 일은, 그 한을 풀어내는 '살풀이' 같은 일입니다."

꽃다운 나이에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 수모를 당했던 나눔의 집 할머니들은 하나 같이 허리 디스크,

류마티스 관절염, 자궁 질환 등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병의 악화를 막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

그러나 후원금만으로 운영되고 있는 나눔의 집의 재정만으로는, 할머니들이 아플 때마다 병원을 찾아 병원장.

10년동안 아들노릇
치료받기에는 너무 벅하다. 이는 배원장이 10년 동안 할머니들의 곁을 떠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배원장이 지난 5월 서울 살림을 정리하고 나눔의 집에서 차로 20분 남짓한 양평에 암 디스크 치매센터를 갖춘 백상한방병원 국제병원



△허리통증이 심해 입원한 김순덕 할머니를 진료하고 있는 배오성 원장. 관절염이 악화돼 현재 백상한방병원 3층 병실에 입원해있다. 한 달이 넘는 장기 입원이라 치료비가 족히 2백여 만 원을 넘지만 전부 무료다. 배오성 원장은 "나눔의 집에 살고 있는 할머니 모두의 마지막 가는 길까지 잘 지켜드리고 싶다"고 말한다. 오종욱 기자

동국학원 경리담당 33억여원 공금횡령

동국학원(이사장 녹원 스님) 사무처 경리 담당 김 모(38) 씨가 법인세 환급금 33억3천여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법인 측에 따르면 김 씨는 법인 인감을 도용해 만든 우체국 통장으로 법

봉원사 경내지 11만평 조계종 명의변경 '말뚝'

분규사찰인 신촌 봉원사주지 인공의 사찰 및 경내지 11만평이 최근 대한불교 조계종 소속 사찰로 명의 변경 등기되어 태고종이 반발하고 나섰다. 조계종에서 10월 19일자로 봉원사 주지로 발령받은 성국스님(속명

이준복)이 '봉원사'로 돼 있던 등기를 11월 20일자로 '대한불교조계종 봉원사' 및 '대표자 이준복'으로 명의 변경했다.

태고종 중앙총회에서는 11월 27일 열린 제83회 총회에서 봉원사 주지 인공스님으로부터 이러한 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제2의 분규'로 규정, 종단 차원의 '종교수호위원회'를 구성해 대처하기로 결의했다. 이경숙 기자

현 시대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성인병의 신호탄 三淨丹(삼정단)

천지개우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 변화를 알겠으니...
오래전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운기학(運氣學), 민간 약초만 연구하여온 삼정스님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야 된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기, 수질, 농약, 중금속오염 등 각가지 공해와 오염의 독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온 인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로 예전에 없던 각가지 중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 가혹할 죽음의 질병들 앞에 우리인간은 완전 무력하다. 옛날 의서에도 세상이 변하는데로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성한 시기다. <음양오행의 화(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혈압, 암 등 각종 장기의 염증증 전체가 화에서 일어난 병이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으니 오염의 독을 해독하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정스님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만히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삼합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육체를 가지게 된다하여 삼정단이라 이름을 붙여 각가지 병들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몸이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위해 삼정스님은 우리 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석남엽, 구지뽕나무 등 각가지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불자들에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 얼굴에 핏기가 없고 이유없이 항상 피곤한분
- 빈혈, 저혈압, 신경성질환, 간염, 간경화, 기관지 천식
- 뼈가 약하며 신경통, 요통, 골다공증,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분
- 각종부인병, 손발이 저리고 냉한분, 불임증, 산후병
- 성욕감퇴, 편두통, 신장염 등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분)

"보시금은 백록정사 불사기금에 쓰여집니다."

상담문의 : 053-652-3300

元·氣·回·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형준비에 지친 수행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산삼의 효능

-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경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약 효험이 있다.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곁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코자 하오니 부담 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처 서울 (02)713-7798, 701-4716

- 별도상당(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당(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한국생약보존(산삼) 연구협회의
서울 「장뇌산삼」 사업부